

#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 정책이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남수태\*

\*원광대학교

## Factors Influencing Policy to Subsidy Regulatory of Smartphone on Purchase Decision

Soo-Tai Nam\*

\*Wonkwang University

E-mail : stnam@wku.ac.kr

### 요 약

최근 이동전화의 급격한 보급 확대와 더불어 스마트폰 단말기의 높은 가격 등은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야기해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조금 규제 정책 요인이 소비자의 지속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예측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용이성 그리고 보조금 규제 정책을 선택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 경남과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모바일 사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인구통계학적인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로 하였고 Smart PL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ABSTRACT

Recently, with the rapid expansion of the mobile phone, such as the high price of the smartphone is being constantly handset subsidies at issue in the social harm caused by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In this research, we aim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of the policy to subsidy regulatory on decision to continue purchasing intention of consumers. Predictor factors were selected the perceived usefulness, the perceived ease of use and the policy to subsidy regulatory on the previous study. Participants of this study be going to 200 mobile users in Busan Gyeongnam and Jeonbuk province in accordance with convenience sampling. IBM SPSS Statistics 19 were employ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Smart PLS(partial least squares) was employ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of casu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nd effect.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 키워드

Smartphone, Mobile communication, Subsidy, Purchase decision

### I. 서 론

오늘날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급속한 확산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하여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구입하여야 한다. 단말기 구입 시 일정기간과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대가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1]. 보조금이 통신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조금에

대한 찬반 의견은 보조금의 성격 혹은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보조금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면 보조금 규제의 논리는 빈약해지고 반대로 보조금의 폐해를 강조하여 규제의 당위성이 주장되기도 한다. 보조금의 긍정적 기능으로는 통신 서비스의 확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통신 서비스는 네트워크 효과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보조금은 통신서비스 가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입을 촉진하여 궁극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도입 초기에 네트워크의 크기를 증가시

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조금의 역할을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보조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시장이 이미 포화기에 접어들어 현 시점에서의 보조금의 역할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에서의 보조금의 약정으로 이동이 제한적인 약정보로부터 자유로운 신규 가입자 시장에서의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 단말기 번들링이 경쟁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 연구[3]에서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이 단말기보조금의 홍역과 자원낭비 및 고가 단말기, 고 통신요금 구조의 악순환 등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 해체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 II. 선행연구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보조금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단말기 보조금이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단말기 보조금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비자 수요증가로 인한 정의 효과와 지급되는 보조금 보전을 위한 이용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과연 단말기 보조금의 직접적인 효과가 소비자 편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 단계에서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되었다[4].

단말기 보조금의 특성 및 경쟁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여타의 요금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은 이용자들의 사업자 변경 시 전환 비용을 결정하며 전환가입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점 등 특성을 구체화 하였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경쟁사 가입자 획득을 위한 가격차별 형태의 전환가입 경쟁으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조사·검토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가격차별은 경쟁을 강화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며 선·후발 사업자간 이윤의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고 상위 사업자의 충성가입자들의 요금이 인상되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에 기반하여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관련된 논점을 재논의 하고 있다[5].

단말기 번들링과 보조금: 단말기 경쟁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보조금 규제는 단말기 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단말기 가격경쟁 촉진 및 가격인하를 위하여 보조금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지되지 못하며 오히려 소비자의 지불액을 시간적으로 잘못 배분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6]. 신규서비스시장에서의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정태적으로 2

기에는 가격차별화 수단으로 1기에는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추가수단으로서 역할하며 동태적으로는 내구재를 판매하는 단말기업자의 1기 시장에서 미래의 자신과의 경쟁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단말기업자의 협상력이 우월한 경우 정태적 효과가 동태적 효과보다 커서 단말기 보조금의 허용은 소비자잉여 및 사회후생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하였다[7]. 기술수용모델은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매우 유용한 모형이다. 기술수용모델은 합리적 행동이론에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신념은 태도에 영향을 주고 태도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의도는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신념변수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믿음을 상정하였다. 인지된 유용성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특정 시스템의 사용 방법이 자신에게 쉽고 편리하다고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의도는 시스템 사용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유용성에 의해 결정되고 시스템 사용은 행위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인지된 가치는 제품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과 지불한 비용에 대한 보상이며 사용자가 지불하고 받은 것에 인지에 근거하여 평가되는 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지된 가치는 금전적인 가치 외에 시간적 비용, 고객의 기호, 고객의 특성, 특정한 상황과 배경, 상징적인 것, 지각된 품질 등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의 사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구매 또는 사용했던 상품의 요소, 성과 그리고 사용결과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지되는 선호도나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인지된 가치의 측정개념을 제외할은 가격 측면, 대가 측면, 상쇄 효과 측면, 전반적 평가 측면 등 4가지 변수를 가치개념에 사용하였다. 스위니 등은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 성과와 품질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브라운은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가격적 가치, 운영적 가치의 4개의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 III.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은 기본적인 기술수용모델에 변수를 추가한 확장된 기술수용 모델이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제도가 소비자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요인과 또한 인지된 가치가 지속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아래 그림 1과 같이 개념모델을 완성하였다. 앞으로 연구의 방향은 설문을 통해 수집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구조모형을 분석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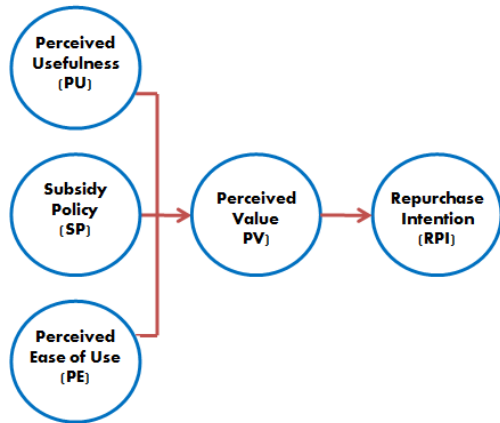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model

### 참고문헌

- [1] W. S. Kim, "Economic Analysis of Mobile Handset Subsidy Competition: Profitable Subsidy Competition and Regulatory Implications,"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vol. 20, no. 3, pp. 47-73, 2013.
- [2] C. M. Kim and I. T. Ahn, "Handset Subsidy and Competition in a Vertically Differentiated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Journal of Business Organization*, vol. 22, no. 4, pp. 51-82, 2014.
- [3] S. G. Jeong, "A Study on the Effects of Handset Bundling on Competition and Consumer Welfa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7, pp. 11-20, 2014.
- [4] S. H. Choi, S. S. Han and J. Y. Han, "An Analysis of the Effect on the Consumer Benefits Attendant on Handset Subsidies," *The Journal of the KICS*, vol. 30, no. 10B, pp. 669-675, 2005.
- [5] J. D. Song and J. H. Kim, "Characteristics of Handset Subsidy and Impact on Competitive Structur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vol. 24, no. 3, pp. 293-323, 2010.
- [6] I. S. Cheong, "Handset Bundling and Subsidy: Competition Effect on Handset Market,"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vol. 20, no. 2, pp. 79-104, 2013.
- [7] J. W. Park and I. T. Ahn, "Economic Effects of Handset Subsidy in Newly Emerging Telecommunication Market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vol. 17, no. 3, pp. 1-40, 2006.